

사회 조직에 관한 추측

복 거 일

사회철학과 이념의 핵심적 논점은 사회 조직이다. 자유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체제를 한쪽으로 하고 전체주의와 명령 경제 체제를 다른 쪽으로 하는 끊임없는 싸움도 본질적으로 인간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사회 조직에 관한 논의들이 인류 사회에 국한된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나 그런 관행은 너무 제약적이다. 논의들이 다른 종들을 포함하도록 넓어지고 보다 기본적인 사회 단위들을, 특히 유전자들을, 포함하도록 깊어진다면, 도움이 될 통찰들이 나올 수 있다.

모든 생명체들은 사회적 존재다.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들을 만든다는 점에서, 생식 자체가 사회적 활동이다. 생명체들 사이의 경쟁을 포함하므로, 자연선택은 사회적 과정이고, 그래서 진화 자체가 사회적 현상이다. 사회의 수준에서 나오는 문화적 현상들은 모두 생물학에 바탕을 둔 ‘문법’을 따르고 모든 생물적 현상들은 물리학에 바탕을 둔 ‘문법’을 따른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물리 법칙들에 바탕을 둔 사회 조직의 문법을 찾아야 한다. 이 글은 그런 사회조직의 문법의 한 부분을 묘사하려는 시도다.

사회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의 유지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개체들로 이루어진다. 자연히, 사회 조직의 중심적 문제는 응집력의 확보다. 유전체부터 생태계까지, 모든 수준의 사회들이 이 문제에 부딪친다. 구성원들이 사회에 속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때, 사회는 응집력을 유지할 수 있다.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기회는 많으므로, 사회적 응집력의 확보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어떤 개체가 협력 대신 배신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훨씬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따라서 응집력의 확보는 실질적으로는 배신 방지 기구를 찾는 일이다. 배신 방지의 원리는 간단하다. 생명체의 궁극적 목표는 유전적 이익의 확보이므로, 생식이 사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배신이 방지될 수 있다. 그래서 응집력이 강한 사회에선 생식이 극도로 통제되어서, 소수의 개체만이 생식한다. 당연히, 사회 구성원들은 혈연적으로 아주 가깝다.

많은 동물들에서 뇌가 발달하자, 혈연만으로 사회의 응집력을 유지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 물려받은 유전적 지식은 한정되었지만, 개체들이 스스로 배운 지식은 빠르게 늘어났다. 그래서 개체들 사이에서 협력을 통해 보다 큰 이익을 추구하는 상호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의 비중이 점점 늘어났다. 상호적 이타주의에 바탕을 둔 뇌가 발달한 동물들의 사회에서 배신을 방지하는 기구는 도덕이다. 도덕의 바탕 위에 사회 관습이나 법과 같은 사회적 강제 기구들이 세워진다.

그러나 도덕은 유전적 이익보다 훨씬 약하다. 그래서 상호적 이타주의에 크게 의존하는 사회들에선 혈연에 바탕을 둔 사회들에서보다 배신이 훨씬 자주 일어난다. 인류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배신은 ‘재분배 카르텔’을 통한 배신의 기구화다. 올슨(Mancur Olson)이 지적한 것처럼, 소득 재분배를 노리는 이익 집단들의 변성은 정치 분야의 확장과 경제 분야의 위축을 통해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쇠퇴를 낳는다.

생명의 본질은 정보처리다. 생식과 신진대사는 유전자들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처리해서 이루어진다. 개체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순수한 정보 처리다. 진화 자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보 처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 몸 자체가 그런 정보 처리를 통해서 축적된 지식이다.

정보는 근본적 중요성을 지닌다. 정보는 우주의 조직에서 가장 근본적 원리로 작용한다고 한다. 생명 현상에선 정보의 중요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리고 정보와 사회 조직 사이의 관계는 사회를 이루어 사는 고등 동물들에서 특히 뚜렷하니, 정보 처리를 조직하는 방식은 사회의 모습에 근본적 영향을 미친다.

뇌를 가진 동물들의 사회에서 정보 처리를 조직하는 길은 둘이다. 하나는 정보 처리를 하나 또는 소수의 개체들로 집중화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 처리를 모든 개체들에게 분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종들은 전자를 따른다. 고도로 사회적인 개미, 벌, 말벌, 그리고 흰개미는 대표적이다. 그런 정보 처리의 집중화에서 핵심은 생식의 집중화다. 하나 또는 소수의 개체가 생식을 전담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유전적 정보가 집중화된다. 이런 종들의 사회에선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규제되고 개체들의 판단에 맡겨지는 부분들은 작다.

뇌가 큰 종들에선 정보 처리가 개체들에게 분산된다. 이 방안은 인류에서 가장 진전된 모습을 한다. 언어가 쓰이면서, 정보 처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집중된 정보

처리는 비현실적이 되었다. 그리고 인류 사회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시장에서 처리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비유가 유창하게 말하는 것처럼, 시장의 분산된 정보 처리는 잘 조직되고 효율적이다. 정부를 통한 정보 처리는 상대적으로 양도 작고 훨씬 비효율적이다.

정보 처리를 조직하는 두 길인 집중화와 분산화 가운데 각 종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틈새에 맞는 것을 고른다. 뇌가 작으면, 집중화를 고르고, 뇌가 크면, 분산화를 고른다.

여기서 흥미롭고 교훈적인 것은 두 방식의 극단적 형태가 중간적 형태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이다. 집중화를 고른 종들 가운데선 집중화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종들이 번성하고 분산화를 고른 종들 가운데선 분산화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종들이 번성한다.

개미, 벌 및 말벌을 포함하는 막시류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이 종들 가운데 개미가 정보 처리의 집중화를 끝까지 밀고 나갔다. 개미는 모든 종들이 사회를 이루어 살고 홀로 사는 개체는 없다. 벌이나 말벌은 사회를 이루지 않고 홀로 사는 종들이 다수다. 생식에서도 개미가 훨씬 집중화되었다. 그리고 개미가 벌이나 말벌보다 훨씬 번성한다. 반대쪽에선 정보 처리의 분산화를 극단적으로 추구해서 시장을 발명한 인류가 가장 번성한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변분 원리들(variational principles)이다. 진화는 개체들과 사회들에서 정보처리를 최적화한다. 사회적 정보처리는 중앙화되거나 분산될 수 있지만, 변분 원리들은 극단적 형태들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정보처리의 중앙화를 극단까지 밀고 나간 개미와 분산화를 극단까지 밀고 나간 사람이 번창한다. 그런 증거들로부터 우리는 인류 사회의 정보처리는 되도록 개인들에게 분산되어야 한다는 인류 사회의 조직에 관한 추측을 조심스럽게 끌어낼 수 있다. 이 글은 『인간 행동과 최소 노력의 원칙』(1949)에서 변분 원리들로 인간 생태계를 묘사하려 시도한 미국 사회과학자 조지 킹슬리 지프의 개척적 연구를 뒤따른다.

소설가

서울 은평구 증산로 1길 26 103동 1306호

전화: 010-4744-4606

E-mail: eunjo35@naver.com

